

지방본부 대의원대회 힘차게 열려

지재식위원장, 대의원과 조합간부의 적극적인 경영참가 활동 당부



▶21일 강북, 강원지방본부 대의원대회

강북지방본부와 강원지방본부가 21일 각각 여의도 지점과 강원본부 대회의실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004년 회계감사 결과와 2004년 활동을 보고하고 2005년 사업을 힘차게 결의했다.

지재식위원장은 본대회에 앞서 대의원들에게 노동계의 현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문답시간을 가졌다. 지재식위원장은 먼저 일부 노동조합의 부정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면서 대의원과 조합간부들에게 높은 도덕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문제에 대해 이수호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조합원들이 이를 지지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는 시대와 사회적 흐름이며 조합원들의 민주노총 변화에 대한 요구라는 단호한 입

장을 밝혔다.

현안 설명이후 대의원들은 ▲조직개편 ▲고용안정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건강관리비 ▲PDA 지급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지재식위원장은 조직개편 문제에 관한 혁신추진단의 지적은 정확했다며 백년동안 정착된 광역국체계를 현실에 맞지 않게 개편한 것은 모두가 인정한 실패라며 이는 올해 사업에 있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영업부서 상품판매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노동조합은 경영계약직의 평가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비영업부서에 대한 상품판매행위를 엄단키 위해 끊임없는 점검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질문답변시간을 마치면서 노동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와 관련해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거듭 당부하며 고용보장은 우리 스스로가 경영참여 등을 통해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북과 강원지방본부는 대의원대회를 마치고 도덕성 재무장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에 적극 활동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한편, 21일 열린 강북과 강원지방본부를 시작으로 오는 28일(월)까지 전국 12개 지방본부의

대의원대회가 개최된다.

▶22일 강남·서부지방본부 대의원대회

강남지방본부와 서부지방본부가 22일 각각 강남지방본부 대회의실과 서부망건설국 회의실에서 대의원대회를 힘차게 개최하였다.

지재식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진출과 우리사주조합장 직선제에 의한 민주적 운영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해야만 하는 현실”이라며 대의원들과 지부장들의 적극적인 단결을 당부했다.

지재식위원장은 현안사항에 대한 문답시간을 가지면서 전반적인 노동계의 현안 설명후 “조합간부들의 도덕성은 바로 노동조합의 생명”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고삐를 다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고용안정 ▲조직개편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존 성과급 80% 지급시기 등의 현안문제를 질의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존 성과급 80%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현재 회사와 차등율을 적용하여 지급토록 협의중이라며 “올 한해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시행 되어야 하기에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재식위원장은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진출과 관련하여 대의원들과 조합간부들이 굳은 의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자며 질문답변 시간을 마쳤다.

강남지방본부 유일한 여성대의원인 조선미 대의원은 편집팀과의 인터뷰에서 “남성 대의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여성조합원들의 목소리는 여성 대의원이 직접 대변하겠으며,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23일 전남·전북지방본부 대의원대회

23일 전남지방본부와 전북지방본부 대의원대회가 각각 지리산수련관과 전북본부에서 열렸다.

지재식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의원들과 지부장의 적극적인 활동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하며 조합간부들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대의원들은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조직개편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80% 지급시기 ▲노동조합 지방본부 운영규정 변경등을 질의했다. 이에 지재식위원장은 지방본부 운영규정에 대해 지부요건의 강화나 약화나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은 규정을 변경할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24일 대구·부산, 25일 충남·충북·본사지방본부 대의원대회

지재식위원장은 “현대증권노동조합이 결연을 맺어 소액주주들에게서 의결권을 모집하는데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고 밝힌 뒤 “외부에서도 나서 도와주고 있는 만큼 조합간부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간부들의 경영참여 활동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비정규보호입법 시도와 관련해 “비정규보호입법은 말만 보호지 사실상 비정규 양산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규직과 직결되는 문제로 노동조합도 민주노총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본부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단언했다.

지재식위원장은 “58세의 정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면 58세를 넘긴 후에 시행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집중투표 청구서 이사회에 제출

노동조합은 23일(오늘) 총 3,815,483주의 위임을 받아 사외이사 후보 집중투표 청구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청구서는 증권거래법 제191조 18(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항 및 상법 제382조 2(집중투표) ②항에 의거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예정인 이사는 3명이며 이사후보자는 서정수(사장추천), 솔로몬(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곽태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병훈 후보(노동조합) 등 총 4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실태 노사합동 실태조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과 관련 운용상의 문제점 파악과 발전적 개선방향 설정 등 효율적인 운용지침을 마련코자 노사는 노사합동 실태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합동 실태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개선 필요사항은 즉시 조치 및 노사간 협의 및 합의를 통하여 개선하겠으니,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의 문제점,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을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05.2.21 ~ 2.25

대상기관 및 점검일

- 2월 22일 : 강남본부 강남망운용국
- 2월 23일 : 충북영업국
- 2월 24일 : 대구망운용국, 울산지사
- 2월 25일 : 광주지사

조사자 : 사용자 • 근로자측 기금이사, 기금담당부장/과장

목적 : 운영관리상태 점검 및 의견수렴

제2회 전국 조직국장 회의

노동조합은 3월 3일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현안문제 및 향후일정 공유를 위한 전국 조직국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였다.

- 제목 : 제2회 전국지방본부 조직국장 회의
- 일시 : 2005. 3.3(목) 14:00~
- 장소 : 중앙본부 회의실
- 참석자 : 전국지방본부 조직국장
- 목적사항 : 현안문제 및 향후 일정 공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3월 중순으로 연기

민주노총은 오늘 2월 19일(토) 오전11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6시간동안 마라톤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 결정사항 >

1. 2월 비정규직입법투쟁과 조직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2월22일 열릴 예정이던 제35차 대의원대회를 3월 중순으로 연기한다.
2. 대의원대회가 민주노총 규약,규정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집위원 전원의 명의로 결의한다.

4 주간KTTU

3. 위원장은 즉각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복귀해줄 것을 중집위원 전원이 건의하고 재신임 여부는 차기 대대에서 결의한다.

* 이번 결정의 의미는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내부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일 다시 대대가 파행으로 가는 것을 막고 우선 각 조직들의 문제제기도 일정정도 수용해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민주노총 대대의 결정사항이 조직 전체적으로도 힘있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 게시판 2005-2-26]

징계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더더구나 회사는 물론 직원의 이익을 극심하게 손상하는 직원에 대해서 징계 특히 파면은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다.

이런 징계는 비리를 저지른 그 당사자에게는 합법적인 반대급부이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징계 특히 파면징계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 수긍이 간다. 그러나 회사 내 징계 통계자료를 보면 이런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면도 있다

징계가 많은 년도에는 비리가 줄어들지 않았고 징계의 원인이 되는 비리사유가 반복되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계도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결국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직원은 어떤 환경에 처하면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징계제도가 있다해서, 또는 동료직원이 비리를 저질러서 징계를 먹었다고해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예방효과 있는 있으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더더구나 파면제도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징계하는 데 사용되는 것보다도 정적이나 회사에 입바른 소리를 하는 직원에게 많이 사용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파면징계는 더더욱 폐지되어야 한다.

파면은 회사내 이의신청을 거쳐 노동부와 민사재판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단순비리(샤규가 예상한 비리사유)에 대해서는 상당수 노동부나 민사재판에서 구제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정적이나 회사에 입바른 소리를 하거나 노조문제로 파면된 경우에는 거의가 다 사외 법적투쟁을 한다하더라도 구제되기가 극히 어려웠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전의 정권에서는 어려웠다.

이는 사측 모리배 경영자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로비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생존이 걸린 사유를 직원이 알거나 발설한 경우에 사내 확산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광범하고 철저한 로비로서 이런 직원을 징계한 것이다.

물론 징계도 신속히 그리고 암암리에 이루어진 것도 특이한 것이다.

징계가 신속하고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내외 특히 사외 언론이나 사법, 정치기관에 광범한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더더구나 이렇게 억울하게 징계 파면당한 직원이 당연히 비리를 저질러서 징계사유가 될만

한 짓거리를 하고서, 징계당한 직원보다도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국가기관에서도 마차가지의 통계가 나온다.

사형수가 살인 강간등에 의해서 사형을 받은 것 보다도 정권에 저항하다가 사형받은 것이 더욱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사형집행은 신속하고 암암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또 무엇을 시사하는가?

잘 알다시피 인혁당사건은 재판 자재도 신속하게 그리고 "쉬쉬" 진행되었고 사형연도 2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고 말았다 . 이 사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치조폭"으로서 세계의 이목을 받은 사건으로서 물론 조작된 것임은 나중에 판명되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두고두고 후회하였다고 한다. 아래것들의 광잉총성에서 비롯된 정치조폭일까?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기전 위증이나 증거 오류 또는 다른 범인니 체포되어 구제되는 경우가 미국은 물론 사법제도가 비교적 완비된 나라에서도 지천에 널려있다.

사태가 이러니 정작 흉악범들은 사형이 언도되어도 김형되고 풀려나는 판국에 우국충정으로 정의로운 시민들은 비명한 번 제대로 못지르고 순식간에 비밀리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KT에서 징계도 바로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재판되고 있다

정작 뇌물먹고 성(性)관계로 복잡한 인물들은 경미한 징계로 그친다. 아니 그 주변 정치관리자들은 뇌물먹고 섹스를 즐겨도 요직에서 KT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입바른 소리를 한 직원은 비밀리에 신속하게 징계가 이루어지고 정치-언론-사법당국에 광범한 로비로서 그들이 다시는 소생 못하도록 죽여버리는 KT.

허위로서 조작으로서 로비로서 파면당한 직원, 구제의 길이 막혀버린 직원은, 저 인혁당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귀신처럼 이제 아무 말도 없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제발 더 이상의 눈물은 없어야 한다. 더 이상의 슬픔은 또 더 이상의 희생자는 이젠 없어야 한다

KT에서 파면징계는 이래서 제도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정작 파면당할 사람이 설치고 다니고 회사를 선두에서 이끌어야 할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이 형국은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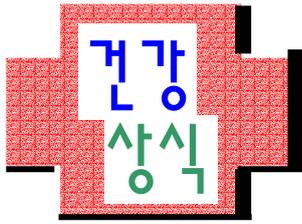
최근 광주에서 직원감시가 불법행위로서 산재판정을 받았다.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

노무현 정부에서 다소나마 로비가 먹혀들어가지 않았음을 단증하는 자료다.

김대중정부 이전에 이런 사건은 사건도 아니었다. 상상도 못할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제 KT조폭경영은 한계에 다다른 것일까?

노무현 정부의 투명경영의지가 언론이나 사법당국에 반영되어 KT정치모리배들의 입지가 줄어들기를 바랄 뿐이다.

노조공작이나 허위조작으로서 억울하게 징계당한 모든 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보낸다. 아울러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줄지에 비명에 간 수많은 애국지사님들... 허위 용공조작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정 애뜻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비만 왜 문제인가?

[출처 : 건강샘 <http://www.healthkorea.net>]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이다. 정확하게는 전체 무게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체지방량)이 남자 25%, 여자30%이상일 때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체지방량을 쉽게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를 대신해서 표준체중표(연령 및 성, 키에 따른 이상적 체중)를 이용하여 상대적 체중을 계산하거나, 체질량지수를 계산하여 비만을 말한다.

표준체중표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브로카(Broca)변법이 있는데 이 방식에서는 표준체중(kg)을 [신장(cm)-100]* 0.9의 계산을 통해 얻은 다음, [현재 체중/표준체중*100(%)]으로 상대적 체중을 계산한다.

계산된 결과가 110~119%이면 과체중, 120%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예: 신장 170cm인 사람의 표준체중은 [170-100]*0.9=63kg이 된다. 이 사람의 몸무게가 74kg이면 상대적 체중은 (76/63*100=114%)이므로 과체중이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신장(m)²]로 계산하며, 보통 이 수치가 25~29이면 과체중 30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예: 신장 170cm, 체중70kg인 사람의 체질량지수는 24.2 (70/(1.7)²)로 정상체중이다). 비만한 사람의 문제는 보통 외모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비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비만한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사망률은 물론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관절염, 통풍, 담석증, 유방암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만한 사람은 체중을 줄여야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체중조절 방법은?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체중조절을 위해 식욕 억제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단식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체중감소 효과는 일시적이며 이를 중단할 경우 체중이 쉽게 증가하고, 약물이나 단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이런 방법을 남용하게 될 위험성이 크며,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또한 이런 방식에 의한 체중조절에 실패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기초대사량의 감소, 식욕불량증, 병적기아와 같은 식사장애에 걸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비만한 사람이 체중을 줄이려 할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정말로 체중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비만 치료는 비만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강상태가 위험수준이거나 체중감소시 건강상태가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① 심한 비만증 환자, 수면무호흡증후군 환자와 인슐린비의존형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을 가진 비만한 환자, ② 비만의 합병증 발생이 더 높은 불부비만 환자로 엉덩이둘레에 대한 허리둘레의 비가 남자는 0.95, 여자는 0.85 이상인 경우이다.

자신의 식사량과 활동량을 분석한 후 체중감량 계획을 세운다.

우선 2주 동안 자신이 먹는 모든 음식을 기록하여 자신이 먹는 음식량을 알아본다.

체중을 줄이기로 결심하였으면 식사요법과 운동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한다.

이 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살을 빼려 하면 안된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계획을 실천할지 시기를 잘 잡는다.

식사요법

1주일에 0.5kg의 체중감소를 위해서는 여자는 1,200Kcal, 남자는 1,500~1,800Kcal의 열량만을 섭취하면 된다.

예를 들어 1,200Kcal의 식단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열량을 60%,20%,20%로 배분했을 때 쌀밥 450g(2컵), 쇠고기 80g(로스구이 약 10쪽), 굴비 30g(작은 1토막), 두부 100g(1/4모), 콩나물 70g, 호박 70g, 깍두기 70g, 김치 70g, 우유 200ml, 사과 100g(중간1개) 그리고 약간의 기름이 허용된다. 이렇게 하려면 조리를 할 때마다 음식 무게를 달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이런 식단을 일일이 짠다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가장 쉽게 섭취 열량을 줄이는 방법은 식사에서 열량이 많이 나가는 음식, 특히 지방질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음식은 사탕, 청량음료, 술, 버터, 초콜릿, 마가린, 햄버거, 튀긴음식, 도넛, 감자칩 등이다.

그 대신 저지방우유, 콩, 채소, 과일, 생선, 기름기 없는 고기 등을 먹는다.

이와 같이 고열량 식품들을 제거한 후 주식의 양을 절반 내지 2/3로 줄여서 먹는 방법으로도 체중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 식사요법을 하면서 배가 고플 경우 섬유소가 풍부하

고 열량이 적은 오이, 상추, 강냉이, 기름을 안 넣고 튀긴 팝콘등을 섭취한다.

또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비만 치료의 중요한 방해 요인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운동을 해라

비만 환자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운동은 걷기이다. 그 밖에 자전거 타기, 수영, 조깅, 등산, 에어로빅 등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하루 30분~1시간씩, 적어도 주 3회가 소모되는데 이는 밥 반 공기에 해당하므로 운동을 하더라도 식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광고는 요주의

최근 체중을 줄이는 많은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 '힘이 들지 않는다, 고통이 없다, 운동이 필요 없다'라는 선전
- '짧은 시간에 체중을 많이 줄여 준다'는 선전
- 인공적인 식품이나 약에 의존하는 프로그램
- 체중조절에 신비한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음식
- 신체의 일부분, 예를 들어 엉덩이나 턱의 살만 빼 준다는 경우

주말에 떠나는

문화체험

해남에서
만남 햇봄

[출처 : <http://travel.waw.co.kr/>]

해남으로 봄마중을 간다. 포근한 황토 들녘엔 추위를 이겨낸 겨울배추들이 자라고, 마늘과 양파가 쑥쑥 싹을 내밀고 있는 해남은 겨울에도 겨울답지 않다. 이름처럼 늘 봄빛이 도는 곳이다.

#겨울 이겨낸 초록 배추밭

목포 귀퉁이에서 금호방조제와 영암방조제를 넘으면 해남길. 바구니를 엮어놓은 듯한 야트막한 산들이 푸르디 푸른 들판을 감싸고 있다.

산도 들도 둥글둥글하다. 모난 곳이 없어 해남땅을 처음 찾은 사람도 낯설지 않고 정겹다.

해남은 따뜻하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해남은 겨울에도 초목이 시들지 않고 벌레가 움츠리지 않는 곳’ 이라고 했다.

해남은 국내 최대의 겨울배추 산지다. 겨울배추의 70%가 해남에서 난다. 3,372ha의 밭고랑에서 30만3천t이 나온다.

보통 1월부터 출하해 3월말까지 이어진다. 겨울에 익은 토실토실한 알배추를 세 포기씩 묶어 푸른 망에 집어넣어 화물차에 싣기 바쁘다.

붉은 황토밭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풍경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 돈 좀 벌었느냐고 물었더니 농투성이 아낙네는 세상물정 모른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앗따. 세상물정을 몰라도 한참을 몰러. 올겨울엔 중국 배추가 작년에 비해 두 배나 수입됐답니다. 그라든 배추금이 오를 리가 있겠소. 농민만 죽어볼지.”

올해는 배추값이 ‘껌값’ 보다 못하다. 1월 말엔 겨울배추가 포기당 350~450원 정도 했다. 포기에 250원 받고 판 농민도 있다고 한다.

화원농협 김치가공공장 정영호 공장장은 8.5t트럭에 2,700포기를 싣는데 한 차에 1백50

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

수송비, 인건비, 기름값이 1백만원이면 포기당 200원 수준. 비료비도 안 나온다고 했다. 생산과잉 때문이다.

해남땅에 겨울배추를 심기 시작한 것은 15년 전. 겨울에도 싱싱한 배추를 맛볼 수 있어 처음엔 제법 수입이 좋았단다.

배추가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 무안, 영암, 장흥, 완도, 진도 함평, 고창, 강진까지 배추밭이 들어섰다.

결국 공급과잉으로 배추값은 곤두박질했다. 아무리 들녘이 평화로워도 농촌은 벼랑끝에 서 있다.

#절에 가는 길 '예인의 명소' 유선여관

배추밭을 지나 대흥사로 향했다. 햇봄이 꽃으로 영근 것이 동백이다. 대흥사에선 1월 하순부터 동백이 피어 3월까지 이어진다.

대흥사 가는 길은 정겹다. 난대림과 솔숲이 적당히 섞여있는 대흥사 가는 길. 이 길을 옛사람들은 구곡장춘(九曲長春)이라고 했다.

동네 이름도 구림리(九林里) 장춘동(長春洞). 굽이굽이 봄이 긴 계곡이란 뜻이다.

약 3km에 달하는 대흥사 진입로는 한걸음에 봄향기를 느끼고, 한걸음에 꽃내음을 좇는 그런 산책로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대흥사 입구 부도전 바로 앞에 유선여관의 문을 두드렸다. 예전엔 주인댁이 가야금을 꺼내 한가락을 들려주기도 했던 기억 때문이다.

유선장은 한때 예인들이 들락거리던 명소였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에는 진돗개 누렁이가 등산객의 길안내까지 한다고 나와 제법 유명해진 곳이다.

한동안 문을 걸어잠겼는데 알고보니 주인이

바뀌었던 모양이다. 영화 ‘서편제’와 ‘장군의 아들’ 등을 촬영했던 집은 여전히 정갈하다.

#다홍빛 동백이 반기는 대흥사

대흥사 부도밭을 지나 처음 마주하는 천불전 바로 옆마당에서 동백을 만났다. 크지는 않지만 옹팡지고 단단한 나무에서 열린 홍동백. 꽃잎을 다 벌리지도 않고 똑 고개를 꺾어버린다.

정조 곧은 기생 같다. 동백꽃 필무렵 대흥사는 천지에 봄기운이 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대흥사는 바람이 봄햇살을 흐트리지 못한다.

산들이 꽃잎이라면 대흥사는 꽃술처럼 꽃꽂이다. 서산대사는 대흥사를 두고 ‘만세토록 허물어지지 않을 명당’ 이라고 했다.

대흥사는 큰 절이다. 백제 때 지어졌고 13명의 대종사와 13명의 대강사를 배출했다. 선지식을 제외하더라도 대흥사처럼 많은 명사들이 흔적을 남긴 절을 찾기는 지금도 힘들다.

대웅보전의 글씨는 남도의 명필 원교 이광사가 썼고, 바로 옆 무량수각은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다.

의병을 일으킨 서산대사가 주석했고, 서산대사를 기리기 위해 정조대왕이 표충사란 사당을 세우고 현판을 썼다.

다성 초의선사는 일지암에서 동다송을 남겼다.

추사와 초의, 원교에 얽힌 이야기 한토막만 해보자.

대웅보전이란 현판을 보면 힘이 넘친다. 운동으로 단련한 젊은이의 근육처럼 단단하다. 추사는 이런 원교의 현판을 보고 유치하니 때어버리라고 했다.

해동 천재로 불리던 추사는 정적들에게 쫓겨 9년 동안 제주도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제주도에서 마음을 비우고 ‘세한도’를 그린 추사는 더 영글었나보다.

유배가 풀려 돌아오는 길에 원교의 현판을 다시 걸라고 했단다. 제주도 귀향지까지 찾아왔던 초의에게는 명선(茗禪)이란 명작을 보냈다.

추사의 현판 무량수각은 둥그스름하지만 품격이 있고 아무렇게나 쓴 것 같지만 흐트러짐이 없다.

배추와 동백으로 봄이 영그는 해남땅. 들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봄햇살이 오글오글 모여 있다.

▲여행길잡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IC에서 빠져나와 해남방면을 택한다. 고가도로로 내려가 두번째 신호등에서 1차선으로 옮겨 타면 국도 2호선. 방조제를 넘어서면 오른쪽으로 진도 방면 길이 보인다.

진도 이정표를 따라가면 화원반도. 배추밭들이 많다. 계속 달리면 해남 읍내로 이어진다.

읍내에서는 대흥사 이정표가 나온다. 대흥사 매표소 (061)534-8072

▲숙박·먹거리

한옥으로 이뤄진 유선여관(061-534-3692)은 원래 신도들이나 수행 승려의 객사로 쓰였다. 40여년전 여관으로 바뀌었고 2000년 새단장을 했다.

3만원부터. 해남읍내에 있는 중앙정식당(061-535-5525/ 536-3264)은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백반집. 5,000원짜리 백반에 반찬이 10여가지가 넘게 따라 나온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